

최저임금 결정 농업계 의견 반영해야

250만 농업인 요구 목살 김중희, 최저임금위원회 포함 의무화 개정안 발의



하고 있다. 개정안은 다른 업종에 비해 열악한

체가 아니라 점도 문제이다. 농업계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숙박이나 식사를 대부분 현물로 제공받지만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못

수익구조, 농업의 계절성, 농업인력 공급의 어려움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농업분야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고, 농업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용자 위원을 1명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김중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계도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을 따라 갈 수밖에

에 없어 농가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업계 특성인 현물급여가 복리후생비에 포함돼야 하는 등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농업 분야 의견을 전달하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농업계 대표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반드시 포함되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진성 기자



"환영합니다"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외교협회(CFR)에서 열린 "위대한 동맹으로 평화(Our Greater Alliance, Making Peace)"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 A Conversation with President Moon Jae-in 행사를 마치고 환영하는 교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포스코, 노조 와해 공작 드러나"

추혜선 의원, 내부 문건 공개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촉구



노조 활동을 음해하고 노조가입을 막으려는 선전물을 배포했다고 전했다. 추 의원은 문건 작성자들이 '우리가 만든 논리가 일반 직원들에게 전달되는지 시범 부서를 선정해 조직화해야 한다', '행정부소장 또는 제철소장이 해야 한다', '비전을 분명히 줘야 한다'라는 내용의 메모를 적은 사실도 확인됐으며 이는 포스코 최고위층의 지시가 없다는 작성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노조 출범 기자회견 일주일 만에 노조 파괴공작을 벌이는 범죄사실이 드러난 것은 포스코 최고위층의 지시나 동의를 따라 종합적인 노조 무력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며 "노조와 대화하겠다고 한 최정우 회장은 책임 있는 답변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포스코는 50년동안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이어왔으나 지난 17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출범했다. /뉴스

포스코가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추석 연휴에 부당노동행위를 시도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혜선(사진) 정의당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포스코가 올해 노무협력실 산하에 신설한 노시문화그룹이 노조 와해 문건을 작성했다"며 "헌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포스코는 현장 관리자들에게 노조에 대한 대응 방법을 담은 내용의 문건을 현장 관리자들에게 배포하기 위해 작성했다. 문건에는 '화해와 대화의 시대적 분위기에 역행하는 강성노조' 등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관리자 외에 일반 직원들에게 배포하기 위한 또다른 문건도 작성했다고 추 의원은 주장했다. 작성자 명의를 포스코를 사랑하는 직원으로 회사 노무협력실이 임명의 직원을 사칭해 정당한

'국가자료 유출' 민낯 드러난 재정정보원

유성엽 "사이버안전관리 21억 사용... 보안 관리는 엉망" 지적

재정정보원의 국가 자료 유출은 무분별한 공공기관 설립이 자초한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유성엽(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사진) 의원은 재정정보원의 청와대 등 국가기관 행정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세금으로 무능하고 비대한 공공기관 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는 공무원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따르면 한국재정정보원의 1년 예산은 429억원으로서 이 중 인건비 등 기관운영에 드는 비용만 219억이 사용된다. 이는 사업비보다



도 기관 자체 운영비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서, 비대한 공공기관에서만 볼 수 있는 기형적인 형태이다. 또한 직원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작년 기준 수당과 성과상여금 포함 연간 6,700만원에 달하는데, 신생기관이라 평균 근속기간이 1.4년에 불과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1년간 겨우 3건의 정보를 제공했으면서도, 연봉 1억원에 달하는 연구원 16명을 신규 채용해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더 큰 문제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만들어낸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연의 업무는 게을리하고 소위 퇴직공무원 자리 만들기에만 급급했다는 것이다. 당초 민간에 위탁돼 있던 업무를 가져와 굳이 기

재부 산하 준정부기관을 만들면서까지 수행하겠다는 과정에서 기재부 고위관료의 '퇴직 후 직장'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증명이나 하듯 현재까지 전현직 두명의 원장이 모두 기재부 고위관료 출신으로 임명됐다. 이와 관련, 2013년 8월 한국재정정보원 설립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당시에도 이미 기재부의 몸집 부풀리기라는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현재 민간위탁업체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재정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출연기관으로 만든다"고 했고, 현재 민간에 위탁 중인데 아직 사고가 난적도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절대 사고가 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고 답한 적 있다.

결국 사고 한번 안 나던 민간 위탁 사업을 소위 기재부 고위 관료들의 '퇴직 후 갈 곳' 만들어주기 위해 무리하게 공공기관으로 만들었고, 인일한 사고와 방만한 경영으로 결국 사고가 나서는 안 되는 부분'에서 사고를 부추긴 꼴이 됐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 예산 중 약 10%인 21억 3천만원과 19명의 담당인력이 사이버안전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 시스템 구멍이 발생한다는 것은 민간 기업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으며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은 전적으로 공무원의 탐욕과 공공기관 특유의 방만하고 안일한 경영이 낳은 예견된 결과"라고 성토했다. /김진성 기자

지역 경제살리기 민생행보 동분서주

김관영, 명절맞이 군산 방문 간담회 개최 현장소리 청취



임직원들과 현재 처한 회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심명수 비승도 어촌계장은 "명절 연휴를 맞아 지역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김관영 의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나정석 피앤디솔라 공동대표는 "올해 설 명절에도 그랬지만 이번 추석에도 시민들의 가장 큰 고민인 지역경제"라며 "비승도 주민들을 비롯해 군산시민들이 지금의 경제적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의원은 "형제들 중에 한 가정만 어려워지면 집안 전체가 아파하는데 현재 시민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지역민들의 아픔과 일주 기업들의 어려움을 듣고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나 대책을 마련해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성=김정훈 기자

추석 명절을 맞아 군산을 찾은 김관영 국회의원이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으로 민생행보를 펼쳤다. 명절 연휴인 지난 23일 김 의원은 군산2국가산업단지 우수지에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발전소를 지은 피앤디솔라 홍보관 현장을 찾아 공사 관계자들과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회와 향후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발전 방향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이날 김관영 의원은 비승도 주민들과 간담회와 함께 지역의 상황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공사 관계자들과 주민들을 격려했다. 다음으로 동군산지역인 조촌동에서 산업단지로 자리를 옮긴 향토기업 페이퍼코리아를 찾아 현장 직원들에게 명절 인사를 건네고 김민섭 노조 지회장 및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